

‘폭염’ 추석 물가 빨간불...제수품 공급 비상

작황 부진에 가축 폐사까지
출하물량 급감 가격 치솟아
손님 끊긴 재래시장 한숨만

최악의 폭염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폭염으로 주요 농산물의 작황 부진과 가축 폐사가 잇따르면서 수급에 차질이 발생,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 내놓을 상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인이나 치솟는 물가에 제수용품 구매하는 소비자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전국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2,334.8ha에 달한다.

이로인해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태백과 강릉 지역은 출하량이 떨어져 배추 10kg당 평균 도매가가 평년보다 43% 급등했다.

이에 따라 배추와 무의 경우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기준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고랭지 배추 한포기당 소매가격은 2주전 5,500원에서 6,700원으로 21.82% 경중 뛰었다. 무 가격도 1개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33% 올랐다.

오이(취청)도 2주 전 10개 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4.29% 올랐고,



“대한독립 만세” 15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건고추는 600g(1근)당 1만5,000원으로 작년 9,500원 대비 57.89% 상승했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류도 물량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과실농가는 폭염에 과실이 버티지 못하고 낙과하면서 예년처럼 정상적인 출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사상에 오르는 사과와 배, 포도 등 과일은 벌써부터 몸값이 치솟고 있다.

전남 장성에서 사과 농원을 하고 있는 박 모씨(55)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사과 색이 변하거나 상처나 과일이 대부분이다”며 “추석이 널모레인데 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이 적어 큰 일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급증하면서 축산물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행안부에 지난 13일까지 집계된 가축 폐사 피해는 전국에서 544만마리에 이른다.

특히 밀집 사육 등으로 더위에 취약한 닭이 505만9,0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이로 인해 지난 13일 기준 육계(중품) 1kg당 소비자 가격은 5,190원으로 한달 전보다 8.2% 올랐다. 올해 닭 소비자 가격이 5,0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행히 돼지(2만1,000마리) 등 다른 가축은 폭염으로 인한 폐사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분위기도 썰렁하다.

폭염으로 인해 손님의 발길이 뜸 끊기고 재고도 쌓여 상인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공급 부진으로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배추, 무, 감자, 상추, 깻잎, 오이, 수박 등은 생산량 감소로 지속적인 오름세가 전망 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남북 접경지역 경제특구 설치”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라며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에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돼 다음 달 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정부지원 받는다

일몰제 제외 2020년부터 정상화

광주비엔날레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받는다.

15일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7회까지만 하기로 한 ‘일몰제’ 규정을 바꾼 것이다.

규정 개정으로 정부는 매년 열리는 행사의 경우 7회, 2년 주기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되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7회·4회·3회씩 일몰을 연장해주시기로 했다.

또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편성되는 지역특별회계인 경우는 일몰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의 행사에 대한 회계권한을 제한했던 부분도 회계 성격과 국제행사의 성과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상당 부분 완화

됐다. 이에 따라 지역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광주비엔날레는 일몰제 적용에서 빠지게 됐다.

광주비엔날레는 2016년 비엔날레 개최 당시, 예산 100억원 중 국비 3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일몰제 적용으로 국비를 9억원만 받았다. 지난해 9억원을 포함하면 국비지원이 18억원에 그친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몰 적용에서 제외돼 2020년 비엔날레부터는 다시 3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연수 기자

양향자 “삼성 전장산업 광주로 끌어와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최근 삼성그룹이 180조원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장(전자장비) 산업 등을 광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광주시 관계자들과 광주발전비전을 모색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일 삼성그룹의 180조원 투자계획 발표와 연계한 광주시 투자유치 계획과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최고위원과 황현택 광주시의원,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 권혁미



건설본부 공사계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삼성그룹의 투자와 연계시켜 광주시의 일자리, 기업투자유치, 문화관광 등 광주시의 당면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황애란 기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임찬혁 투자총괄과장, 채종환 자동차산업과 합작법인 담당, 김용승 관광진흥과장, 안주태 도시철도

건설본부 공사계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삼성그룹의 투자와 연계시켜 광주시의 일자리, 기업투자유치, 문화관광 등 광주시의 당면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황애란 기자

/황애란 기자

두뇌스포츠 바둑문화의 활성화!

제7회 신안천일염배 학생바둑대회

▶ 접수기간: 7월 9일(월) ~ 8월 24일(금)

▶ 참가자격: 광주·전남 지역의 유치원·초·중·고 재학생

▶ 접수처: 광주광역시초등바둑연맹
☎062)673-3780, 010-6745-4211

▶ 대회부문: 최강부, 유단자부, 초등1학년부, 초등2학년부, 초등3학년부, 초등4학년부, 초등5,6학년부, 유치부, 꿈나무부, 중고등부, 여학생부

일시 >> 2018년 9월 8일(토) 1시

장소 >> 광주문성중·고등학교 체육관

주최

1004 신안군

주관

JMS스포츠 _ 광주광역시 초등바둑연맹

협조

(사)한국바둑교육협회 _ 전라남도초등바둑연맹